

제2009년 제 7회

# 아츠 페스티벌 디멘션

(The 7th Arts Festival Dimension)



## The 7th Arts Festival Dimension

- Date/Time : 5월 10일(일) | 오후 5시 30분 연주, 오후 7시 30분 연주  
5월 12일(화) | 오후 8시 연주
- place : 금호아트홀(Kumho Art Hall)
- Date/Time : 9월 28일(월) | 오후 8시 연주  
9월 29일(화) | 오후 7시 30분 연주  
9월 30일(수) | 오후 7시 30분 연주
- place : 세종챔버앙상블홀, 예술의 전당 리사이클홀, 남산한옥마을

■ 주최 : Kang Sukhi Music Institute 강석희음악연구소  
■ 주관 : 아츠페스티벌디멘션 집행부  
■ 후원 : 한국국제교류재단, 서울대학교

한국에는 작곡가들의 새로운 작품을 들어볼 수 있는 음악의 제전이 여럿 있습니다. 정기적인 작품발표회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 음악회들은 이미 긴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축제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음악회도 우리에게 깊이 각인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에 새로 시작된 Arts Festival Dimension이 올해로 벌써 일곱 번째를 맞이한 것이 놀랍습니다.

Arts Festival Dimension이 처음 그 문을 열었을 때, 대체적인 반응은 이미 해오던 것들도 많은데 왜 또 하나를 더하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해를 거듭할수록 Arts Festival Dimension이 가지고 있는 공기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다분히 작곡가 강석희가 지니고 있는 작가적 상징이 발하는 그 무엇과 상통합니다. 무한한 우주적 시간과 짧은 삶의 시간 사이의 긴장 속에 거하는 인간, 그 인간이 창안해 낼 수 있는 온갖 소리의 상징적 중계 장치들에 대한 작가의 관심이 다방면으로 흐르고, 해당 년도의 어떤 특정 흐름이 축제의 'Dimension' 이 된다는 것입니다.

올해는 대만에서 전통악기로 현대음악을 연주하는 Chai Found Music Workshop이 연주할 새로운 음악들이 궁금합니다. 최근 한국의 음악계에도 전통음악을 바탕으로 한 창작곡이 많은 연주단체들을 중심으로 더없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상호 비교가 될 뿐 아니라, 오래된 악기들의 유사성이 어떻게 현대화되고 있는지도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되어 기대가 됩니다.

대략 20명에 달하는 작곡가들의 작품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니 그 또한 기대가 큼니다. 동시대인들의 상상력과 창조를 소리로 공유한다는 것은 언제나 새로운 수수께끼를 접하듯 아름다운 흥분을 유발합니다.

이미 그 연주력을 인정받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주디 강이 들려줄 음악도 궁금합니다. 서로 다른 시간과 공간에서 만들어진 음악들을 한 무대에 펼칠 그녀의 깊이 있는 해석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flute과 cembalo가 만들어낼 소리의 공간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음악회와 달리 비교적 근자에 만들어진 음악들이 연주되는 공간에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전 역시 클림트의 전시회 못지않은 소리의 새로운 전시회라고 생각합니다. 창의성에 유난히 관심이 쏠리고 있는 요즈음의 추세로 볼 때, 여기에 펼쳐지는 소리의 전시회는 여러분을 분명히 새로운 상상력의 세계로 안내할 것입니다.



김 춘 미  
(음악평론가,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올해는 상반기와 하반기 공연으로 나뉘어 공연됩니다.

5월에는 금호아트홀 연주뿐입니다.

9월에는 백병동, 이건용, 이찬해, 전인평, 김희정, 윤혜진, 김미림의 가야금 3중주와 4중주 작품들이 연주됩니다. 그리고 안소정, 김은혜, 최지연 등의 우수 작곡가들의 작품이 연주될 예정입니다.



**5월 10일(일) ▶ 오후 5시 반 / 금호 아트홀 /** 대만 출신의 Chai Found Music Workshop  
 (Sun) 10 May at 5:30(pm) ▶ in Kumho Art Hall with Chai Found Music Workshop

- Untitled No.3-4 ..... Traditional Beigun  
 Ke Zai Xuan(殼仔弦), Di(笛子), Pipa(琵琶), Yangqin(楊琴)
- Labyrinth Promenade ..... Hwang-Long Pan  
 Erhu(胡琴), Di(笛子), Pipa(琵琶), Guzheng(古箏), Yangqin(楊琴)
- Liu Su ..... Chih-Chun Lee  
 Di(笛子), Liuqin(柳琴), Yangqin(楊琴)
- South Muse I ..... Tzy-Sheng Lee  
 Erhu(胡琴), Xiao(簫), Pipa(琵琶), Guzheng(古箏), Yangqin(楊琴)
- Midnight Drinking Song ..... Chen-Hui Jen  
 Erhu(胡琴), Di(笛子), Pipa(琵琶), Guzheng(古箏)
- Layers ..... Ying Lee  
 Di(笛子), Pipa(琵琶), Erhu(胡琴), Yangqin(楊琴), Guzheng(古箏), Ruan(阮咸)
- Mind World ..... Ding-Lien Wu  
 Di(笛子), Pipa(琵琶), Erhu(胡琴), Yangqin(楊琴), Guzheng(古箏), Ruan(阮咸)

**5월 10일(일) ▶ 오후 7시 반 / 금호 아트홀 /** 바레리오 파솔리(Valerio Fasoli:Fl.)와  
 마르코 비딘(Marco Bidin:Cembalo)  
 (Sun) 10 May at 7:30(pm) ▶ in Kumho Art Hall with Valerio Fasoli (Fl.) and  
 Marco Bidin (Cembalo)

- Siciliano for flute and cembalo ..... Sciarrino Salvatore
- Man-Pa ..... Sukhi Kang
- Ogive for flute and cembalo ..... Alain Gaussain
- Anagrama for flute solo ..... Athanasia Tzanou
- The Why of Azatoth flute and cembalo ..... Trevor C. Bjorklund

**5월 12일(화) ▶ 오후 8시 / 금호 아트홀 /** 주디 강 바이올린 독주회

- 이신우      Fantasy for violin and piano  
 Laudate Dominum (2006/2008)
- 최우정      Belle époque(벨 에포크)
- 조성은(위촉)    "Violin Voce Vivace" for violin solo (2009)
- André Prévost    Improvisation pour Violin Seul (1976)
- Eugène Ysaÿe    Sonata no 2 in A minor  
 Obsession Prelude: Poco Vivace  
 Malinconia : Poco lento  
 Danse des ombres    Sarabande (Lento)  
 Les Furies



# I 연주자 소개

## 첫 번째 연주회(5월 10일(일) 오후 5시 반)

### Chai Found Music Workshop

1991년부터 국내무대와 국제무대에서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데뷔 초부터 중국과 대만의 전통 음악 뿐만 아니라 현대음악을 같이 연주하기 시작하였고, 이미 대만, 아시아, 유럽과 미국에서 연주회를 많이 가진바 있다. 이것이 시주 양상불(sì-zhū: 중국 실내악: 현악기와 목관악기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악기의 재료에 따라 구분되는 8음의 비단(sì)과 대나무(zhū)에 속한다)로서 세계 제일의 명성을 갖게 하였다. 이러한 음악적, 문화적 활동은 대만의 안과 밖의 경계에서 대만음악의 진보이며, 전통악기의 진보라 할 수 있다. 또한 재능 있는 젊은이들을 위한 훈련된 기관으로서 활동과 설명서, CD를 출간하여, 유능한 연주인들을 위한 큰 기금을 모으기도 했으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대만 정부기관 문화국의 지원을 받아 상금을 받기도 하였다. 전통의 기초로 현대적으로 확장시키면서 새로운 문화 비전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번에는 얼후(중국식 해금), 디(중국식 관악기), 비파, 고쟁, 양금, 월금 등이 구성된다.



Shu-Fen Lee  
李淑芬 - Yangqin



Chen-Ming Huang  
黃正銘 - Erhu



Chung-Hsien Wu  
吳宗憲 - Di



Hui-Kuan Lin  
副團長 - Pipa



Hsien Lin 林易  
- Gucheng



Si-Yi\_Yen



Si-Yi\_Yen  
Sifu\_Ensemble, 2007

## 두 번째 연주회(5월 10일(일) 오후 7시 반)

### 바레리오 파솔리(Valerio Fasoli : Fl.)



이태리 파두아(Padua) 출신, 1993년에 Clementine Hoogendoorn Scimone 교수 지도하에 파두아 음대를 졸업하였으며, 그 후로, 이태리 로마 이탈리아 플룻 아카데미(the Italian Academy)에서 Raymond Guiot 교수를 사사했고, 1996년에 졸업하였다. 1997년 그는 Claudio Scimone의 'I Solisti Veneti'와 연주를 시작으로 1998년에는 사보나 시포니아 관현악단(the Orchestra Sinfonica di Savona)과 협연하였다. 그는 국내와 국외의 많은 상을 받았으며, Aurele Nicolet, Jean-Claude Gerad, Karl-Heinz Zoller, Ramson Wilson, Peter-Lukas Graf, Rien de Reede 등과 마스터 클래스를 갖었다. 2001년에는 Janos Balint와 Marzio Conti를 사사한 후, 독일 시립 트로징엔 음악학교(The Staatliche Hochschule für Musik Trossingen)에서 Arife Gulsen Tatu 교수와 음악 과정을 마쳤고, 2003년 연주학 트플롬을 받았다. 독일에서 새로운 음악에 대한 관심이 커져, 앙상블 Polyphonie T와 연주하였고, Manfred Schreier 교수가 지휘를 하였는데, 거기서 세계 유명 작곡가의 작품을 만날 기회를 얻었다. 2007년 이후 지금까지 시립 트로징엔 음악학교에서 플룻을 가르치고 있다.

마르코 비딘(Marco Bidin : Cembalo)



그는 이태리, San Vito al Tagliamento(Pordenone) 출신으로 1976년생이다. Udine 에서 "Liceo Musicale"을 공부하였고, 1998년에 학위를 받았다. 2000년 볼로냐 음대 (the Conservatorio of Bologna)에서 "Musica e Liturgia"를, Udine 음대(the Conservatorio of Udine)에서 L.Falilone 교수와 "Organo e Composizione Organistica"를 공부하였다. 2003년과 2005년에 각각 독일, 트로징엔 음대에서 Historische Orgel과 Organ에서 연주학 디플롬을 받았고, 2006년에 챔발로로 학위를 받았다. 그리고 2006년에 Wurzburg 대학으로 가서 오르간으로 학위를 받았다.

Academie d'Orgue de Fribourg, Haarlem Organ Academy 등 다수의 마스터 클래스를 가졌다. 2008년부터는 스튜트가르트의 Gnaden 교회에서 오르간니스트로 활동 중이다. 오르간니스트 챔발리스트로서 이태리, 독일, 스페인, 크로티아, 바티칸 등에서 많은 음악회를 가진바 있다.

세 번째 연주회(5월 12일(화) 오후 8시)

쥬디 강



캐나다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4세 때부터 바이올린을 잡아 같은 해에 솔로 리사이틀과 함께 지방 콩쿨에서 우승한 천재 바이올린니스트다. 9살 때 캐나다 전 수상 Brian Mulroney와 각국의 대사들 앞에서 연주하여 캐나다 교포사회 전체를 놀라게 한 바 있으며, 10세 때부터 클래식 음악 시장에 뛰어들어 National Arts Orchestra와 함께 솔리스트로서 텔레비전에 출연하여 찬사를 받기도 하였다.

'Ottawa Citizen'에서 그녀에 대해서 말하였듯이, 그녀의 열정은 처음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오늘의 스타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쥬디강일 것이다. 그녀의 재능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서 바이올린니스트로서 예외적이며, 그녀 마음대로 악기를 연주하면서도 복잡하지 않게 쉽게 놀라운 영감으로 마음의 감동을 주는 것이다."

1년 후에 커티스 음대 오디션에 응시하여, 전 장학금으로 입학할 수 있었고, 마침내 17세 때 커티스 음대(Curtis Institute of Music) 역사상 최연소로 졸업할 수 있었다. 커티스에서는 음악 공부와 레퍼토리를 배우데만 온 힘을 기울여 연주회 수를 1년에 몇 차례로 제한하기도 하였다. 그녀의 선생들은 Aaron Rosand, Rafael Druian, Karen Tuttle, Felix Galimir, 그리고 Gary Graffman이었다. 그녀는 젊은 연주자들을 위한 CBC 경연대회에서 "가장 좋은 음악에 대한 해석상" 뿐만 아니라, 대상을 받았다.

Royal Liverpool Philharmonic과 같은 캐나다의 오케스트라들, 앙상블들과 공연하였으며, 부천 필하모니, 유라시아 필하모니, 코리안 챔버 앙상블 등 한국의 연주인들과도 공연하였다.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과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 앞에서 연주하는 영예를 받았다. 그리고 그녀는 Claude Frank, Miriam Fried, David Geringas, Gary Hoffmann, Lynn Harell, Cho-Liang Lin, 정경화, 레온 피셔 등과도 함께 작업하였으며, Marlboro, Ravinia, Bargemusic, Manchest, Aspen, Evian, Banff, Orford, Ste. Petronille 등에서 이미 연주한 바 있다.

조지현(피아노)



서울예고, 서울대음대 피아노과 졸업,  
줄리아드 석사, 맨해튼 박사,  
현재 단대 교수



## II. 작곡가와 작품 소개

### 강 석희



서울 음대 작곡과 졸업. 독일 하노버 음대와 베를린 공과대학을 졸업하였다. 윤이상, 블라허, 빙켈 등을 사사. 전 서울음대 교수. 현재 계명대 특임교수.  
삼국유사의 고대 신화인 "만파식적(萬波息笛)"을 테마로 해서 1981년에 플룻 콘체르토(14개의 플룻 앙상블: 가브리엘리 슈미트 연주)로 작곡된 곡이다. 오늘 연주될 곡은 2007년에 파울 리가 직접 녹음하여 원래의 곡을 새롭게 편곡한 것이다.

### Ding-Lien Wu(딩-리엔 유)



전직이 초등학교 교사였으며, L. A의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철학박사학위를 받았다.  
1987년부터 타이베이 동부 대학(Dong Wu University) 교수가 되어, 1988년부터 국내 치아오 텅(Chiao Tung)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쳐, 1992년부터 2006년까지는 교수로 재직하였다. 이 기간 동안 컴퓨터 음악 워크숍의 의장을 포함하여 음악과장을 역임하였다. 2006년부터는 타이베이 동부대학의 음악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대만에서 Wei-Liang Shih를 사사하였다. 그는 Gus Kahn 장학금(1983), Atwart Kent Award(1983), Hortense Fishbaugh Fine Arts 장학금(1984)을 받았고, L. A의 Blaze Music Festival(1984) 상주 작곡가로 초대받았으며, 박사들을 위한 뉴욕 China Times 장학금(1986), 남가주의 Phi Bets Kappa 국제 아카데미 장학금(1987)을 받았다. 대만 문화부로부터 위촉을 받아 세 개의 스트링 악기들과 목관을 위한 곡과 세 개의 챔버 앙상블 곡을 썼다. 1988년부터 1999년까지 대만 과학부로부터 수많은 리서치 상을 받았고, New Grove 사전에 올랐으며, 2002년에는 타이난 교사 대학(The Tainan Teachers college)으로부터 주목할 만한 앨범 상을 받았다. 그의 학문적 활동으로는 국제 전자음악회의(1989, 1991, 1992) 참석, 홍콩의 중국인 대학의 제 6회 중국음악의 역사 세미나(1999), 타이베이 국내 음악회의(2000)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의 작품은 "Thoughts in Autumn"(U. S. A, 1982), "노스탈자의 탄식"(U. S. A, 1983, 1986), 목관과 현악기를 위한 "3개의 배역에서 가을 편"(U. S. A, 1984), Trio "Empty"(독일, 1989), 그의 관현악곡 "첫 번째 물결, 그리고 그때 후수는 고요함"은 타이베이 국립 음악홀(1990, 1998)에서 공연되었다. 또 다른 관현악곡 "결코 끝나지 않는 순간, 버전 3"이 대만의 타이청(Taichung)의 중국 작곡가 페스티벌(1992)에서 초연되었고, 타이베이 아시아 음악 페스티벌(1994)에서 재연되었다. 2대의 피아노를 위한 "결코 끝나지 않는 순간, 버전 2"는 1992년 U. S. A. San Jose의 국제 컴퓨터 음악회의(ICMC)에서 연주되었다. 1997년, 성악, 목관, 현악기를 위한 "Nian Nujiao"가 상하이 심포니 관현악단에 의해 초연되었다.

### Chen-Hui Jen(첸-후이 젠)



1981년, 대만의 카오시웅(Kaohsiung) 시에서 태어나, 4세 때 피아노를 Chen-Hui Jen으로 부터 사사 받았다. Kaohsiung 고등학교의 음악부 2년 이후(1996~1999), Sun Yet-San 대학(1999~2003) 음악부를 졸업할 때까지 작곡을 Tzyy-Sheng Lee 교수로부터 배웠고, 타이베이 국립예술대학 음악대학 대학원의 작곡 학생으로서 입학하여 2005년 황룡판 교수의 지도하에 석사학위를 받았다. 2004년 이후로 ACL-대만(아시아 작곡가 리그 국제 위원회)과 ISCM의 타이완 지부의 멤버이다.

대만 국제 Young Composer's Project(2003)에 당선되었고, 2004년에는 문학을 비롯한 3개의 다른 카테고리과 관련된 순수예술 작곡 경연대회에서 상을 받았다. 그 해 11월에는 Chai Found Music에서 상을 받았다. 공부하는 동안, 대만 국제 예술대학에서 Kuan-Du Arts Festival Competition 2004 상을 받았고, 2005년에는 장학금 혜택을 받았다. 그녀의 바이올린 콘체르토 "The Mind of Crescent Moon"이 2005년에 초연되어, Formosa 작곡 경연대회에서 2등을 했다. 2006년 6월 ISCM 세계음악제에서 슈투트가르트(SWR) 남서부 독일 라디오 심포니 관현악단과 공연하였고, 같은 해 12월에는 7개의 중국 악기들을 위한 "선조의 영혼을 위한 스펙트럼"을 통해서 Tsang-Houei Hsu 국제 음악 경연대회 민족 음악 악기 부분에서 3등을 하였다. 2006년, 대만 교육부로부터 장학금을 받아 미국으로 건너갔으며, 샌디에고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작곡 박사학위를 받았다.

## Tzzy-Sheng Lee(첸이-셴 리)



1965년 타이베이에서 태어났으며, 대만의 현재 가장 대표 작곡가이다. 그의 작품들은 명망있는 Pi-Hsien Chen, Het Trio, Jane's Minstrels, Oesterreichisches Ensemble fuer Neue Musik 등에서, 유럽, 북미, 아시아, 오세아니아의 ISCM, ACL, "상하이 봄", "바르샤바 가을", 찰즈부르크 "Aspekte"와 드레스덴 "Global Ear"에서 공연되었다. 중국의 전통음악에서 깊게 영향을 받았고, 동양과 서양의 음악적 아이디어와 유산을 창의적으로 그의 작품에서 시도하고 있다. Yen Lu, Hwang-Long Pan 등과 작곡 공부를 하였고, 1996년에 펜실베이니아 대학에서 작곡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현재 대만의 국립 Chiao Tung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다.

## Hwang-Long Pan(황-롱 판)



1945년 대만에서 태어나, 국립대만 보통 대학을 1971년에 석사로 졸업하였으며, 두 번의 대만 국립 예술상을 받은 바 있다. 1974년에 주리히에 있는 음악학교와 음악아카데미를 들어가 작곡을 Hans Ulrich Lehmann과 공부하였으며, 이론과 대위법을 Robert Blum과 하였다. 1976년 졸업 후 하노버의 Staatliche Hochschule에서 음악과 연극을 Helmut Lachenmann과 하였으며, 1978년부터 1982년까지 베를린 예술 대학에서 윤이상과 공부하였다. 1982년 대만에 복귀하여 타이베이의 국립 예술연구소에서 겸임교수를 지냈으며, 1991년 이후로는 교수가 되었다. 1998년부터 1999년까지는 연구와 발전 센터 과장으로, 2000년부터 2002년까지는 학생처장으로, 2002-8년까지는 타이베이 국립 예술대(TNUA)의 학장으로 지낸 바 있다. 판은 몇 개의 유명 음악 협회에서 활동하였으며, 문화부의 음악위원회 구성원으로, 또한 위원장으로, 국립 극장과 타이베이 음악을 자문위원회에 임원으로 그리고 타이베이 작곡 경연대회 예술 감독으로 활동한 바 있다. 2007년 이후 TAC(Taiwan Association of Composers)와 ACL(Asian Composers' League)의 대만 지부 의장이다. Boston Modern Orchestra Project(2000), Klang Forum(2004), Taipei Percussion(2005-)과 국제 가우데아무스 음악 주간(1980), ISCM/WNMN (홍콩 1988, 바르샤바 1992, 부하레스트 1999, 룩셈부르크 2000, 요코하마 2001, 베른 2004, 홍콩 2007), Presences (파리,1996), Hoergaenge Wien(2000), Berliner Festspiele(2002, 2004), Taiwan Philharmonia Malaysia-kuala Lumpur tour(2007), 앙상블 2e2m 등 유명 음악제에서 그의 작품을 연주하였다.

## Chi-sun Lee(지-선 리)



브란데부르크 비엔날레 작곡가 대전에서 우승한 그녀는 본래 대만의 Kaohsiung 출신이고, 현재 미국, 남프로리다 Tampa 대학의 교수로 있다. 박사학위를 미시간에서 받았으며, 오하이오 대학에서 두 개의 석사학위, 대만의 Soochow 대학으로부터 학사학위를 받았다. 그녀는 수많은 영예를 가지고 있다.; 하버드 Fromm Music 장학금 수혜, 대만 국립 문화예술위원 위촉, 국제 Alliance 여성 음악 콩쿨 입상, ISCM/ 작곡 경연 League 우승, 플로리다 예술가 Enhancement 상, SCI/ASCAP 학생 작곡가 위촉, 홍콩 Chou 장학금을 받았고, Joyce Dutka Arts Foundation 상, 타이베이 음악상 등을 받았다. 그녀의 가장 중요한 초연은 카네기 홀에서 가진 "Concerto for Zheng"이다. 그녀의 최근 리뷰는 Gramophone(08/07)에 있으며 신문 리뷰가 "Preu ß enspiegel", Brandenburger Wochenblatt(BRAWO), Markische Allgemeine과 독일 Markische Allgemeine Brandenburger Stadtkurier(09/06)에 있다.

## Ying Lee(잉 리)



예술가 가족으로 자라나, 국립대만 예술대학과 Missouri State University(UMKC)의 음악연구소를 졸업하였다. 1992년 타이베이 지자체 중국 클래식 관현악단과 타이베이 중국 관현악단의 유스 관현악단의 지휘자로 있었고, 1993년에는 ISCM의 멤버가 되었고, 같은 해 중국 타이베이 문화대학, Hanaoka 예술학교, 국립대만 예술대학, 국립 대만 공연예술 예비학교, Xinzhuang의 Fu Jen 가톨릭 대학 음악과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그는 이시대의 대만 음악 장에 가장 활동적인 모습의 한 사람이다. CD "현악과 목관악기를 위한 전설"이 타이베이 자치구 중국 클래식 관현악단과 함께 녹음되어졌고, 2005년 Golden Melody Award 베스트 작품상을 받았다. 상주 지휘자로서 Kaohsiung 시 중국 관현악단, 타이베이 필하모니 챔버 관현악단과 Chai Found Music Workshop을 이끌고 있다. 수많은 각기 다른 스타일의 100개 넘는 공연을 지휘하였다. "I see China series I ~IV", "Xuan Yun Chun Qing", "Taiwan and Taiwan", 방송 뮤지컬 "미녀와 야수", "타이완 밤의 노래들", "Memorial Concert for Yu Xian Deng", 중국 오페라 "Han Yue / Cold Month", "Liang Zhu / The Butterfly Lovers", "Li Qing Zhao"와 Chu Lu Hao의 "Monkey King / Journey to the west". 그는 작곡가로서도 또한 매우 활동적이다. 대 중국 관현악단을 위한 곡들을 썼고, 가장 유명한 것은 "Yi Zhi Sui Xiang"와 "Tian Gu"이다. 그는 또한 시주 음악(중국 실내악)을 위해서도 작품을 썼다. : "Tiers of Mountains"와 "Drinking in the Moonlight" 는 중국 악기의 악기론으로서 유명한 작품이다. 지금까지 타이베이 지자체 중국 클래식 관현악단, 홍콩 중국 관현악단, Chai Found Workshop, 타이베이 월금 챔버 오케스트라, Lang Yang Dance Company와 같은 유명 음악 단체로부터 위촉을 받았다.

## 최 우정



'Belle époque(벨 에포크)'란 파리를 중심으로 한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걸친 약 25년간의 시기가 자 동시에 그 시기의 삶의 방식, 이상 등을 지칭하는 개념인데 이 시기에는 기계 문명에 대한 기대와 이국적인 것들에 대한 관심, 전통 및 제도권으로부터의 탈피, 삶의 즐거움과 아름다움에 대한 찬미가 전반적인 정신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는 음악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는 바 몇 가지 예를 들자면 피아노의 메커니즘을 활용한 금속성 음향 및 바이올린의 특수 효과를 사용한 투명한 음향, 한국 전통음악 리듬의 역동성을 담은 연속적인 리듬패턴, 고딕 양식과 관련이 있는 노트르담 악파의 오르가눔 기법 그리고 그 당시 번창하였던 뮤지컬에서 들었을 법한 선율들 등이다.

이 작품은 2004년 5월 스위스 브리엔츠(Brienz) 호숫가에서 개최되었던 'Metamorphoses' 음악제 개막 연주회에서 피아니스트 김응구와 바이올리니스트 슈나이더(Georges-Emmanuel Schneider)에 의해 초연되었다. 그 해 음악제의 주제가 바로 'belle époque'인 연유로 그와 관련된 신작이 개막 연주회에서 연주되어야 했다.

최우정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파리국립고등음악원 등지에서 작곡 및 음악이론을 공부했다. 현재 서울대학교 작곡과에서 작곡과 대위법을 가르치고 있으며 통영국제음악제앙상블(Ensemble TIMF)을 이끌고 있다.

## 이 신우 Shinuh Lee



이신우는 재독 작곡가 진은숙과의 만남을 계기로 작곡을 시작하여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에서 강석희를 사사하였다. 이후 영국으로 건너가 왕립음악원과 런던대학교, 서섹스대학에서 마이클 피니시를 사사하였고 현재 서울대 작곡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영국 체류기간동안 ISCM세계음악제, 가우데아무스 국제작곡콩쿨, 레오나르드 번스타인 예루살렘 국제작곡콩쿨에 입선하였고, 뮤지컬 타임스, 코넬리우스 카듀 등의 작곡콩쿨에서 우승하였으며, 한국에서는 대한민국작곡상, 안익태작곡상과 한민족창작음악축전 대상을 비롯해 난파음악상과 문화관광부가 수여하는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을 수상하였다. 익시온 앙상블, 아스코 앙상블, 바로크 합주단,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예루살렘 심포니 오케스트라, BBC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수원시향, 성남시향, 창원시향 및 KBS 교향악단 등에 의해 연주된 이신우의 작품은 대편성 관현악을 위한 《시편 20편》(1994-96, 1998년 개작)을 기점으로 크게 달라진 음악적 경향을 보이고 있다. 영국 체류기간동안 쓰여진 그의 작품들은 전체적으로 음향적이고 현상학적인 20세기 후반 유럽 현대음악의 한 맥락 안에서 이해되어질 수 있다. 이후 바이올린 협주곡 《보이지 않는 손》(2000/2002), 피아노 협주곡 《기쁨의 노래》(2001/2003), 현악합주를 위한 《열린문》(2004) 등의 작품을 통해 인류의 죄와 고통, 구원에 관심을 갖고 이러한 주제에 대한 음악적 표현 방식을 찾는 데 주력하여 왔다. 이를 보다 심도 있고 깊게 연구하고자 2006년부터 바이올린 환상곡, 피아노 환상곡, 오마주 시리즈, 코랄 판타지 등의 연작을 작곡하기 시작하였고, 현재 더 패스웨이 콘서트 시리즈 및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현대음악시리즈 스튜디오2021의 음악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다.

### Fantasy for violin and piano / Laudate Dominum(2006/2008)

이 곡은 모차르트 탄생 2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바이올리니스트 유시연의 2006년 독주회를 위해 작곡된 바이올린 판타지다. 모차르트의 'Vesperae solennes de Confessore' KV 339 중 Laudate Dominum을 직접적으로 인용하여 작품의 종교적, 음악적 모티브로 사용하였으며 Laudate Dominum의 내용과 유사한 시편 103편을 작품의 부 텍스트로 사용하였다.

이 곡에서 사용된 두 주제, 즉 인용된 모차르트의 주제와 새로 작곡된 주제는 곡 전체를 구성하는 두 개의 중요한 축으로 사용되며 새로 작곡된 주제가 반복, 확대, 발전되는데 반해 인용된 모차르트의 주제는 그 원형의 색깔이 드러나지 않도록 주제의 매개변수(parameter)들을 성격 변주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텍스트 'Laudate Dominum'에 대한 모차르트의 인상을 바탕으로, 작곡가 개인의 신앙적, 음악적 인상을 확대 발전시킨 곡이라 할 수 있겠다.

Laudate Dominum omnes gentes  
audate eum omnes populi  
Quoniam confirmata est supernos  
misericordia ejus  
Et veritas Domini manet inaeternum  
Gloria Patri et filio et spiritui sancto  
sicut erat in principio et nunc et semper  
et in saecula saeculorum Amen

주님을 찬미하라 모든 민족들이  
주님을 찬미하라 모든 백성들이  
영원하신 사랑 우리 위에 넘치고  
자비로운 마음 끝없네  
주님의 진리 영원하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 조 성은



서울음대 작곡과, 독일 에센 국립음대 작곡과 졸업, 독일 WDR 방송국 주최 'Forum Junger Komponisten' 국제작곡콩쿨 입상, 독일 쾰른시 Bernd Alois Zimmermann 작곡상 수상, 독일 SWF 방송국의 Heinrich-Strobel 재단 후원 작곡가, 쾰른 Kunst-Station St. Peter의 'Composer in Residence' 체류작곡가, ISCM 스위스 취리히 세계음악제 및 서울 세계음악제 입선, 독일 보름스베데 예술인마을 체류작곡가, 스위스 취리히 ISCM 지부 초청-작곡가포트리 개최, 독일 Deutsche Welle 방송국 '베를린 장벽 붕괴 10주년 기념 음악제' 위촉 작곡가 난파음악상 수상

### "Violin Voce Vivace" for violin solo (2009)

외로운 소리는 혼자 있는 고귀함이 있어서 외롭지 않다. 혼자 울리기 때문에 강할 수 있고 작은 움직임은 큰 파도를 일태시키고 큰 움직임은 숨 막히는 절제를 요구한다. 적막을 깨기에는 빈 공간이 너무 아름답고 빠른 움직임은 다시 적막 속에 사라진다. 그 적막 속에서 우리는 끝없는 움직임을 읽는다. 움직임이 있어 편안하다. 수많은 발자국 뒤에는 일정한 호흡이 동반되기 때문이다. 모든 것은 정점을 향한 이동이다.

## 앙드레프레보스트(André Prévost) (1934 - 2001)



작곡가, 교사로 알려진 그는 1960년 CMM에서 1등을 하여, 비록 캐나다 온타리오(Hawkesbury) 출생이지만 퀘벡에 속해 있다. 캐나다와 퀘벡 주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파리 음악원에서 메시아와 분석 공부를 하였고, 1961년 예를 노르말에서 Henri Dutilleux와 함께 일하였다. 1980년 후반까지 50개 넘는 작품을 썼고, 그들 대부분은 오케스트라와 다른 기관으로부터 위촉을 받은 것이다. 그의 작품은 프랑스, 영국, 스위스, 유고슬라비아, 뉴질랜드, 한국, 미국 등 해외에서 널리 연주되고 있다.

### Improvisation pour Violin Seul (1976)

그의 즉흥 솔로 곡은 솔로 바이올린(I), 솔로 비올라(II), 솔로 첼로(III)를 위해 1976년에 작곡된 3부곡의 한부분이다. 그의 음악적 미적 개념은 악장에서 음색의 세계를 포함시킨다는 면에서 크세낙키스를 닮았다. 그렇지만 그의 표현 모드와 작곡은 모든 악파와 결정론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그는 현대적인 기교와 자유로운 작곡 진행을 사용한다. 어떤 작곡가들에게는 극도로 중요한 구조에 대한 이해가 그에게는 보충 물에 지나지 않으며 그 결과가 작품 스스로 '생명적 숨'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초반까지 작품에 대한 그의 생각을 설명하고 있다. "바이올린 솔로 즉흥곡은 매우 신비스런 분위기로 시작한다. 조용히 시작하여 점차 템포를 더하면서 곡의 도입부의 크라이막스 끝으로 향하는 두 개의 소리가 함께 융화되는 두 개의 특징 사이의 대화하는 식의 감각에 곡의 핵심이 달려 있다. 다음 섹션에서는 짧게 정 템포로 가고 있고 강도 있는 분위기의 싱크로페이션 리듬을 사용하고 있다. 중 4도 화음을 곡 전체에 주로 사용하며 시작 멜로디로 다시 복귀된다. 코다는 짧은 편이며 바람 같은 효과를 지닌다. 매번 공연되는 작품의 시간이 자연성을 가지도록 즉흥적인 감성의 감각을 반영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그의 작품은 매우 분명하다."

## Eugène Ysaÿe Sonata op.27 no. 2 in A minor (1924)

작 티보드 2번 바이올린 솔로 소나타로 불린다. Eugene Ysaÿe(1858-1931)는 6개의 소나타를 썼으며, 각각은 그 시대의 바이올리니스트에게 헌정되었다. Szigeti(no.1), Jacques Thibaud(no.2), 바이올린 솔로로 된 6개 곡 중에서 4개의 곡으로 구성된 소나타이다. Joseph Szigeti(no.1)가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솔로 바이올린 G minor 소나타를 공연 한 후, Ysaÿe가 영감을 받아 그 당시의 음악적 기교나 표현방법의 발전 면에서 대표 될 만한 곡으로 발전시켰다.

### 강박관념 전주곡(Obsession Prelude) : Poco Vivace

악장의 시작부분에서 바이올린 솔로를 위한 J. S. Bach's Partita No. 3 in E major의 Prelude가 직접 인용되고 있다. 악장이 마치 바흐의 E major 프렐류드처럼 거장적인 16분 음표들로 구성되고, 20세기 초기의 곡들의 장르에 맞추어 분명한 반음계적 조성으로 되어있다. 바흐 작품에 대한 강박관념을 들어내는 듯 바흐의 프렐류드가 자주 나타난다.

### Malinconia : Poco lento

또 다른 위대한 테마 "Dies Irae"(진노의 날)로서 가톨릭 죽은 자들을 위한 미사에 나오는 노래이다. 전체의 느린 악장이 묵음 기법으로 연주되고 있다. 이 악장의 끝에서 마디 없이 음들로만 이루어진 이 선율은 마지막 악장에서도 다시 등장한다.

### Danse des ombres : Sarabande (Lento)

사라방데는 테마와 변주곡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그 주제가 Dies irae의 변주라 할 수 있다. 첫 몇 개의 마디에서 주제는 피지가토로 연주되고, 마치 기타나 류트를 연주하듯 소리를 만든다. 이 악장은 6개의 변주곡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변주곡은 점진적으로 끝까지 발전된다. 예를 들어, 첫 번째 변주곡에서 작곡자는 단순한 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연주자가 비브라토를 사용하지 않도록 지시하고 있다. 마지막 변주는 기교적으로 32분 음표를 요구하고 있고 모두 포르테로 연주하게 되어있다. 그런 다음 테마가 반복되고 활로 연주된다.

### Les Furies : Allegro furioso

Dies Irae 선율이 악장 전체에 걸쳐 다시 등장한다. Dies Irae 음형의 부분은 41마디에서 58마디까지 sul ponticello로 연주되고 있다.

# 후반기 제 7회 아트페스티벌디멘션

9월 28일(월) ~ 30일(수) ▶ 오후 5시 반 / 세종 챔버홀,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 남산한옥마을

**첫** 번째 연주회(9월 28일(월) 오후 8시)

❖ 작곡발표회 I 김미림 작곡발표회

**두** 번째 연주회(9월 29일(화) 오후 7시 반)

❖ 작곡발표회 II 가야금 3중주 연주회

**세** 번째 연주회(9월 30일(수) 오후 7시 반)

❖ 작곡발표회 III 강석희 제자 및 우수작품연주회



## 김 희정



86년 서울예술고등학교 졸업.

90년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졸업, 96년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University of Pennsylvania) 예술과학대학원 석사 및 박사(M. M. & Ph. D.). 97년 미국 하버드 대학(Harvard University) 예술과학대학원 포스트닥터 연구원, <2003 세계여성음악제> 진행위원장 역임, <제9차 세계여성학대회> 문화위원 역임, 현 미국 국제여성음악인연맹(International Alliance of Women in Music) 이사, 2009년 <한국임시정부수립 90주년 기념 겨레의 노래> 국립극장 제작 총연출, 현 상명대학교 뉴미디어 작곡과 교수

3대의 12현 가야금을 위한 <야상산조> (2009)

'야상산조'는 3대의 12현 가야금으로 연주되는 3악장의 곡으로, 전통산조에서 나타나는 감미로운 가락과 애원조의 분위기를 현대적으로 표현하여 구성한 작품이다. 3대의 산조가야금은 서로의 가녀린 농현과 주법을 섞어가며 야상적인 분위기를 음색적으로 표현하도록 작곡하였다.

## 전 인평



작곡

서울대 음대 및 대학원, 한국정신문화원 박사, 유네스코 실크로드 연구 조정위원, 중앙음악연구소 소장, 문화재청전문위원 등 역임. 아시아 음악학회 회장, 영문 음악학술지 Asian Musicology 발행인, 중앙대 국악대 교수, 주요 작품; 거문고 협주곡 <왕산악>(1996), 실내악 <타골의 노래>(1998), 거문고 합주곡 <가야의 노래>(1999), 국악 관현악 <고구려 송가>(2000), <25현 가야고 변주곡 '바닷가에서'>(2001)

가야고3중주곡 <바울의 노래> (2009)

바울은 인도 집시이다. 유럽 집시와 다른 점은 확고한 자신의 독특한 신앙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유랑하는 유람종교음악인이다. 바울의 뜻은 '바람'이란 뜻이다. 이들은 정말 바람처럼 바람 부는 대로 유랑한다. 그리고 노래와 춤으로 신의 가르침을 전한다. 이들은 정말 놀랄 정도로 세속적인 욕심이 없다. 일견보기에는 거저들이 떼 지어 이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춤과 음악은 듣는 사람의 가슴을 쥐어뜯는 힘이 있다. 이들의 음악을 어떻게 가야고로 표현해 볼까. 이 작품은 이러한 물음에 대한 답이다.

## 이 건용

(1947- )



음악에 조예가 깊은 목사의 가정에서 태어났다. 별다른 음악교육을 받지 않았으나 일찍부터 작곡가가 되겠다고 마음먹고 나름대로 곡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서울예술고등학교에 입학하여 본격적인 작곡 수업을 받았다. 대학시절에는 연극과 문학에 심취하여 여러 작품을 연출, 연기하였고 신문문에 소설부문에 당선되기도 했다. 1965년부터 서울대학교 음악대학과 대학원에서 작곡을 공부하였고 1976년에 독일에 유학하였다. 귀국이후 대구 효성여대 작곡과에서 가르치기 시작한 이래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를 거쳐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작곡과 교수로 있으며 2002년부터 2006년까지는 이 학교의 총장을 역임한 바 있다. 1981년에 작곡동인 제3세대의 창립멤버로 참여한 이래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으며 1988년 민족음악연구회를 창립하여 몇 년간 회장을 지낸 바 있다. 그의 작품은 가곡과 칸타타 오페라를 비롯한 성악곡, 실내악곡과 관현악곡 등을 포함한 기악곡 등에 폭넓게 걸쳐있다. 한국의 전통음악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 이 음악의 언어를 받아들인 작품이 많으며 국악기를 위한 작품도 여러 편 작곡하였다.

### 주요작품

오페라 <봄봄> <동승>, 관현악곡 <E 음으로부터의 전주곡> <결>, 실내악곡 <저녁노래 1-7>, 국악 관현악을 위한 <산곡> <가을을 위한 도드리>, 25현 가야금을 위한 <잎, 물, 빛> <별과 시>, 칸타타 <들의 노래> <라자로의 노래> <꽃풀이>, 합창 음악 <예수그리스도의 수난> <ALM을 위한 미사> 가곡집 <우리가 물이 되어> <저물면서 더욱 빛나는 바다> 외 다수

### 검은 강 스케치 (2007)

"산이 신음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라는 지율스님의 말을 전해 들었을 때 나는 그 소리가 어떤 것인지 알 듯하였다. 허리가 굽긴 산 능선이나 꺾절이 벗겨진 숲을 보았을 때 "도살"이라는 말이 생각난 적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어느 겨울 댐 옆을 지나다가 그 넓은 얼음 광장 위를 새까맣게 뒤덮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얼음구멍이를 하나씩 끼고 고기를 낚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소름이 끼쳤었다. 작은 물고기, 큰 물고기를 초고추장에 찍어 자기 입에도 넣고 자기 아이들 입에도 넣으며 즐거워하는 여인들, 그리고 그 모습을 신나게 보도하는 TV 앵커들, 신나게 울리는 노래들.....

<검은 강 스케치 I>은 사라지는 연약한 것들과 텅 없이 '위대한' 인간의 모습에 대한 것이다.

강이란 월인천강(月印干江)의 강이다. "검은"은 더러움, 어둠, 절망, 분노이기도 하고 깊은, 기다림이기도 하다. (이건용)

## 백 병동

1936년 1월 26일은 한국의 작곡가이다. 만주에서 태어나 1961년 서울대학교 작곡과를 졸업했고 1971년에는 독일에서 윤이상을 사사했다. 2005년 현재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명예교수이다.



### 세 개의 가야금을 위한 "담즙" (1992)

1992년 서울새울 가야금 3중주단의 위촉으로 작곡된 이 작품은 각기 고음, 중음, 저음으로 서로 다른 음역을 갖는 세 개의 가야금을 위한 작품으로 각 가야금은 G평조(sol mode)음계의 3번째음 C와 5번째 음E를 C#과 Eb으로 변화시켜 조현(고음 가야금은 5도 위)한다. 단악장으로서 템포와 그 성격에 따라 4부분으로 구분되나 구성양식(형식)을 초월하여 제목 그대로 '담담히 즙을 짜듯' 한결같은 흐름이 유지된다. '소리에서 소리를 잉태하는 고통과 희열', '발산과 뭉침에서 벗어나 오는 담(淡)과 즙(汁)', '소리의 빛과 그늘'이 세 가야금의 폭넓은 음역에서 선율적, 다성적, 화성적, 음향적 가능성을 짜집기하듯 소릿결을 짓는다.

## 이혜진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및 동 대학원. 인도 국립 Visva-Bharati University 음악학 박사(Ph.D). <침묵의 언어, 소리>, <절대고독으로의 비상>, 음악극 <물고기의 숲>, <말과 음악> 등과 독주·중주·실내악·성악곡·관현악 위촉 작품인 <기호로서의 소리>, <묵음(默音)>, <수굴개공(樹掘開空)>, <반향(反響)>, <의도된 정지>, <영산회상 회귀(回歸)>, <공·감(空·感)>, <이위지성(耳爲之聲)>, <흐느끼는 낙타>, <내 눈 속의 눈>, <숨문>, <절대고독으로의 비상>, <씨 안의 나무속의 씨>, <그를 발견하다>, <사실일>, <우리가 만난 적이 있던 가요>, <높은 밤이... 날아간다>, <검은내>, <비인집>, <소도조간(蘇塗鳥杆)>, <정념>, <절대고독으로의 비상>, <꽃 같은 인생>, <소리그물>, <흰입(還入)> 등.



### <공·감>(空·感)

본 작품은 세 대의 산조가야금으로 구성된 것으로 미분음의 제시와 표현을 가장 응집력있게 표현하는 전통적인 주법 및 기법으로 제시되었다. '공(空)'이라는 것은 비어있는 동시에 모든 것이 가득 차 있는 상태를 의미할 수 있다. 생성 이전의 시기, 즉 생성의 근거이자 의미로 근거하고 있는 '공'은 생성 이후에도 생산물의 안이자 밖에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바는 한국음악이 의미하고 있는 악론(樂論)과 일맥상통하며, 자극적이고 가파른 정점으로 가득 찬 현재 창작음악의 '꽉 찼'의 시작을 다시금 돌아보게 한다. 안과 밖에 공존하고 있는, 비어있으나 비어있지 않은 '공'이 음악에 의해 순환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음악에 의한 '감(感)'일 것이다.

## 이찬해

연세대학교 학사/ 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석사 및 박사 수료. Oakland University, U.C Berkely 교환교수 역임. 대한민국 작곡상 (양악, 1998) / 대한민국 작곡상 (국악, 2006). Outstanding Woman of the 21th Century 수상 (ABI). 현, 연세대학교 교수/ 서울 컨템퍼러리 오페라 컴퍼니 예술 감독, 현, IAWM (International Alliance of Woman Musicians) 한국 Liaison



### 4대의 가야금을 위한 "빨래터" (2009) Bbaletteo for four Gayageums

누군가가 말하기를 작곡가는 바람에 색깔을 칠해주는 사람 같다고 한다. 아름다운 색채의 소리, 파격적이고 강렬한 소리, 따뜻하고 환상적인 소리, 단순하고 섬세한 소리 등이 떠다니는 바람 안에 색깔을 입혀주려나...

이 작품은 박수근의 "빨래터"에서 영감을 받고 쓴 것이다. 소설가 이경자 님이 최근 박수근의 빨래터를 소설로 써서 출간했다. 그 소설 가운데 다음과 같은 글이 실려 있다. "여러 어머니가 등을 뒤로 한 채 두 팔에 힘을 다해 빨래를 짜고 허리를 굽힌 채 방망이질을 하던 사춘기 때의 고향 개울가. 어머니들의 등에 새겨진 노동의 수고와 가치는 세상에서 가장 선한 행동이자 사랑이었던 것이다." 빨래터는 그에게 이미 오래전부터 익숙한 곳이었다. 식구의 빨래를 들고 개울로 나가 오래도록 손때가 묻어 반질거리는 화강암 빨랫돌에 지든 때를 비비고 치대면서 불행이나 고난, 슬픔도 이렇게 빨 수 있다면, 상상하고 바란 적이 있었다. 세상의 때도 이렇게 빨 수 있다면... .

## 김미림

서울음대 동대학원 국악작곡 전공으로 졸업. 폴란드 크라쿠프 음대 작곡 박사. 대한민국작곡상, KBS 작곡콩쿨, 난파상 가야금 3중주를 위한 전주곡 1번 (2009)



대만 Chai Found Music Workshop을 위한 6중주(디, 비파, 완함, 고쟁, 양금, 얼후)의 곡을 가야금 3중주로 바꾸어 보았다. 곡의 아이디어는 음색의 변화를 주로 생각하면서 동양음계적인 5음계적 선법, 온음계적 선법을 만들어 내면서도 반음 음계와 무조 진행을 통해서 그 선법의 흐름을 깨트린다. 음의 소재에 대해서 고민하면서도 그것이 음색을 변화하는데, 어떤 작용을 하는지 계속 같이 하지는 않지만 깊은 관련이 있음을 알게 된 작품이다.

## 김미림 작품노트 프로그램

### ■ 실내악 “춤” (2007)

2007년도에 쓴 실내악 “춤” 을 연주함. 전통음악의 소재 중에서 아악에서 나의 창작 어법을 찾아내려고 함.  
“춤” 은 과거의 고민이면서 또다시 복잡한 상념을 불러일으키는 과거의 흔적이면서 그리고 회복.

### ■ 사진속의 풍경(2008)

과거의 사진 한 장에서 시작된 모습이 하나의 지워진 과거를 풍경처럼 떠올림. 국악기의 음색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선율과 장단도 아닌 그 어떤 음악적 요소가 창작 국악에 있는 것인지 고민 하면서 유학을 결심했던 98년 가을... 그때 가지고 갔던 것들이 이제는 지워진 것에 불과합니다. 더 이상 작품이 아니었으며, 새로운 경험이었고, 새로운 이야기였음을.....

### ■ 겨울(2007) 외

2005년부터 썼던 3개의 서양 관현악 작품(타악기 포함)을 챔버로 연주함

### 〈연주단〉 연주자



#### 이유나

서울예고 졸업.  
서울대학교 국악과 및 동대학원 졸업.  
서울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서울예고 강사 역임.  
수원대학교 국악과 겸임교수 역임.  
서울대학교 강사 역임.  
현 국립국악원 정악연주단 가야금 수석.  
아시아 금교류회 회원, 이화여자대학교 강사



#### 김기열 : 대금

서울대학교 국악과 졸  
동대학원 졸  
국립국악원 정악단 단원  
건국대학교 음악교육과 강사



#### 김희선

국립 싱가포르 대학교 아시아 연구소 연구원 역임.  
미국 피츠버그 대학교 민족음악학 박사  
서울대학교 및 동대학원 졸업.  
미국, 유럽, 아시아, 한국 등지에서 가야금 독주회  
및 렉처 독주회, 한국음악 특강 등 다수.  
현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겸임교수,  
서울대학교 동양음악연구소 연구원

#### 최희연 : 해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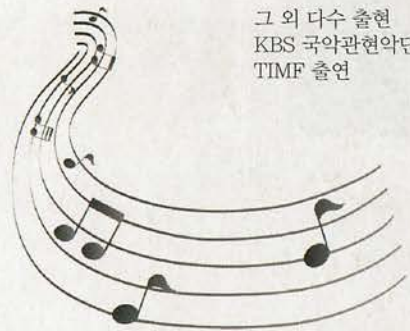
서울대학교 국악과 졸업,  
동대학원, 박사수로



#### 곽수은 : 가야금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동대학원 졸업,  
박사과정 수료  
동아공률 현악부문입상.  
21세기 한국음악프로젝트 입상(작곡 및 연주).  
국립국악원 위촉 배경음악 작곡 및 연주.  
국내·외 개인독주회 7회, EBS 스페이스공감  
'가야금연주자 곽수은 편' 방송.  
「곽수은 가야금독주곡집 I, II」  
「25현가야금 자작곡앨범  
'가야금이 있는 풍경' vol.1.」

그 외 다수 출현  
KBS 국악관현악단 외  
TIMF 출연



Korea Foundation

한국국제교류재단